

# 김진영

✉ k jy\_815@naver.com

☎ 01085896883 | 📅 1992년생 | 🏢 신입

## 기술스택

HTML5

CSS 3

JavaScript

React

Next.js

Prisma

Python

Firebase

## 학력

**명지전문대학 / 대학(2,3년)**

문예창작과

2014.02

학점 2.58/4.5

## 링크

<https://real-bird.vercel.app/>

Portfolio

<https://github.com/Real-Bird>

Github

<https://real-bird.notion.site/Portflio-3b4450a511514bc1b5518378e4640c30>

Notion

<https://velog.io/@real-bird>

Blog

## 교육이력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

한국생산성본부

2021.04 - 2021.10

- JAVA, Python, Javascript 등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문법을 익히고, 기초적인 CS 지식 습득

- 최신 기술 동향인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을 중점적으로 배웠고, 해당 지식을 활용한 프로젝트 진행

- CNN 학습 모델과 웹캠을 활용한 거북복 판단 웹 사이트 구현으로 교육 성과 발표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자격증

정보처리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06

최종 합격

수상이력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빅데이터 과정' 성과발표회

한국생산성본부

2021.10

최우수상

자기소개서

성격의 장단점 : 책임 / 나태

주어진 일에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 성과를 이룹니다.

ICT 교육 내 미니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카카오맵 구현을 맡았습니다. 당시 Javascript를 난생처음 접하기에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꼭 해보고 싶은 마음에 해당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예상대로 구현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완성해야 했지만, API를 이해하지 못해 며칠 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별은 말도 있고, 제가 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완전히 었어지기 때문에 밤잠을 줄여가며 코딩했습니다. 다양한 검색어로 구글링을 하고, 참고한 코드를 이리저리 고쳐가며 API와 로직을 이해했습니다. 그 덕분에 팀원 중 가장 먼저 주어진 기능을 구현하고 다른 팀원을 도와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 성격의 단점은 금방 나태해진다는 점입니다.

나태함이 가져오는 문제는 제게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과 일에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은 제 실력이나 힘에 부치는 일을 만났을 때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저는 목표를 잘게 나눠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 행동합니다. 더불어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적고, 실행 여부를 기록합니다. 매일 성취 여부를 확인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단점이 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전: 작문에서 코딩으로

중학생 시절, 소설가를 꿈꾼 후 외길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대학 전공 역시 '문예창작과'를 졸업했고, 그 후에도 작가가 되려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노력과 안일한 마음가짐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보내던 중 우연히 ICT 교육 광고를 접했습니다. 가장 떠오르는 분야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교육이었습니다. 코딩에 대한 호기심과 장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운 좋게 합격을 하게 되었고, 코딩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강사와 관리자 역시 문과 출신이 버티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코드를 작성하는 절차가 글쓰기와 비슷해 이해가 더디지 않았습니다. 변수는 등장인물로, 의사코드나 구조 설계는 플롯으로, 예약어는 복선으로 관련지었습니다. 그래도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에, 매일 교육이 끝난 후 그날 배웠던 내용을 블로그에 정리하며 복습했습니다.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밤새 코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익힌 코딩 역량 덕분에 팀 프로젝트에서 엔지니어 역할을 맡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비전공자 셋으로 이루어진 팀에서 주도적으로 코드를 작성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했고, 교육 내 발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난생처음 접하는 분야를 단 기간에 익히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밤새 코딩을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물을 생성해내면서 코딩에 대한 자신감과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위 경험을 통해 꾸준히 역량을 강화하여 성과를 내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

## 포부: 새로운 기술을 환영하는 사람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을 빠르게 익혀 개발 트렌드 최전선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이 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 세 단계로 세부 사항을 나눴습니다.

주니어 개발자 단계에서는 현재 익히고 있는 테크 스택을 더 깊이 파고들어 완전한 이해를 우선시 합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가용한 스택을 하나씩 늘려 'T자형'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개발 언어는 문법 차이를 제하면 로직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JAVA와 Python, Javascript 등의 언어를 익히며 깨달았습니다. 언어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백엔드와의 소통도 어렵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 풀스택 개발자를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신기술은 더 나은 UX를 목적으로 출현합니다. 고객에게 최고, 최선의 만족을 주기 위해 서라면 신기술 습득은 불가피합니다. 미드 개발자 단계에서는 이러한 지식을 미리 습득하여 아직 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후임에게 다양한 개발 지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새롭게 익힌 언어 지식을 공유하다 보면 저 자신의 역량 또한 강화되고,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시니어/리드 개발자 단계까지 오를 수 있다면, 비전공자 출신으로서 개발자를 꿈꾸지만 접근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개발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기존의 개발 언어를 전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개발자가 아니라면 접하기 어려운 기술 동향을 비 개발자에게 알려주어 더 많은 사람이 개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사내에서는 신기술을 통한 프로젝트를 주도하여 팀원에게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고객에게는 최고의 UX/UI를, 팀원에게는 최고의 개발 경험을 전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최전선에서 뛰는 개발자로 남겠습니다.

---

## 의사소통: 하나씩, 천천히

제가 생각하는 의사소통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언어 전달이 아닌 느리더라도 상대방의 이해를 도와 효율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팀 프로젝트 경험에서 이러한 부분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ICT 교육 팀 프로젝트에서 저희 팀은 저를 포함해 모두 비전공자였습니다. 프로젝트 역할 분담 후, 각자의 역할만 잘 수행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 내에서 배운 기술이니 각자 수행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행 과정을 공유하는 회의

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코드를 팀원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회의가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팀원이 그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그때 제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전달과 공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제가 가장 정직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코드를 한 줄씩 리뷰하며, 사용한 라이브러리의 주 기능이 무엇인지, 해당 함수가 어떤 값을 리턴하는지, 파라미터를 왜 조정했는지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팀원이 프로젝트 전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추후 수정한 부분도 쉽게 설명할 수 있었고, 발표자도 어려움 없이 발표를 마쳤으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위 경험에서 제가 이해한 정보가 꼭 상대방의 이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배웁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지양하며, 언급할 수밖에 없을 때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 설명하는 것이 뒤이은 과정을 뒷받침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개발 직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통 문제를 제가 가진 역량으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

### **자기계발: 뒤처지지 않는 개발자가 되기 위하여**

CS 비전공자이면서 개발 공부에 임한 기간이 짧아 실력이 뒤처진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어, 부족한 역량을 채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계획을 세워 인터넷 강의, 전문 서적, 개발 문서 등을 보며 하루도 빠짐없이 코드를 작성하고, 깃허브에 푸시하고 있습니다. FE 공부를 결심한 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일명 '잔디 심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어가는 중입니다. 또한,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이 휘발되지 않도록 Velog에 기록합니다. 또한, 부족한 CS 지식을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해 22년 6월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역량과 기술 스택을 더욱 강화하여 타인은 물론 최신 기술 동향에도 뒤처지지 않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